느낀점

10512김택서

배구:이미 중학교때 한번 배웠던 종목이라 배우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부 친구들은 아직 배구공을 다루는데 익숙해 지지 않은 채 경기를 하여

대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 하지만 많은 인원이 함께 참가하였던 경기인 만큼

학기초에 어색한 친구들끼리 친해지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다

우리 반만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배구를 연습 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배구대회에서 한 번 이라도 이길 실력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은 연습시간이 필요할 것같다

탁구:영상교육관에서 진행되었던 탁구수업은 만족스러웠다 인원대비 많은 탁구대로 한 반이

쓰기에는 모든 친구들이 사용 할 수 있었던것이 좋았다. 하지만 중간에 1관뒤로

위치를 옮기면서 진행하는데 약간 불편했다 수평이 맞지 않는 탁구대와 공을 찾기 힘든

수풀, 불규칙한 바닥등으로 비교적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래도 특히 중간중간 체육선생님과

함께 탁구를 하는것은 실력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또 방과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실력향상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얼티밋:연습을 통해 실력향상이 제일 많이 된 종목이 아닌가 싶다

아직도 첫 수업시간이 생각난다 수업 맨 마지막시간에는 멀리던지기를 했었었다

플라잉디스크를 처음 접했을 때는 물론 멀리 날아가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옆으로 기울어 휘며 날아갔던 디스크는 연습때도 볼 수 없던 궤적으로 날아갔었다

물론 그런것은 나 뿐만아니라 반전체가 비틀비틀거리는 디스크를 던져댔었다

하지만 한두번의 연습시간과 경기를통해 커브, 에어바운스 기술을 쓸수있게되고

제법 쭉 뻗는 디스크를 던지는 진구도 생겼다 비록 경기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첫시간을 돌이켜보면 헛된 시간이었다고는 생각하지않는다

감상 바라는점 하고싶은말